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의 음악수업 활용 및 지도방안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조 은

2023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석사학위논문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의 음악수업의 활용 및 지도방안연구

지도교수 허 대 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조 은

2023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의 음악수업 활용 및 지도방안연구

지도교수 허 대 식

박 조 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박조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웅 (서명)

위 원 허 대 식 (서명)

위 원 김 효 정 (서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6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Guidance of Music Classes to 「Body Percussion」

Park, Jo-Eun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ur, Dae-Sik, Prof. of Music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2023. 8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국문초록 ····· v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3
4. 선행연구 ····· 3

Ⅱ. 이론적 배경 ····· 6
1. 바디퍼커션의 이론적 배경 ····· 6
1) 바디퍼커션의 정의 ····· 6
2) 바디퍼커션의 배경 ····· 7
2. 음악교육에서 신체 움직임을 강조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 ····· 8
1) 달크로즈와 프랑스 제3공화정 ····· 8
2) 코다이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 10
3) 오르프와 바이마르 공화국 ····· 12
3.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에 대한 교육관 ····· 14
1) 달크로즈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 ····· 14
2) 코다이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 ····· 15
3)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 ····· 16
4. 신체표현이 수업에 미치는 효과 ····· 17
5.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과 영역 고찰 ····· 19
1)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 19
2) 성격 및 목표 ····· 21
3) 교수·학습의 방향 ····· 2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바디퍼커션을 적용한 수업지도안 ····· 24
1. 바디퍼커션을 적용한 지도방안 구안 ····· 24
1) 바디퍼커션 수업 설계 ····· 24
2) 차시별 지도 계획 ····· 25
(1) 1차시 수업 지도안 ····· 25
(2) 2차시 수업 지도안 ····· 28
(3) 3차시 수업 지도안 ····· 31
2. 차시별 설문조사 응답 분석 ····· 34
1) 1차시 수업 설문조사 응답 분석 ····· 34
2) 2차시 수업 설문조사 응답 분석 ····· 36
3) 3차시 수업 설문조사 응답 분석 ····· 38
4) 각 차시별 '5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견해 ····· 41
(1) 1차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견해 ····· 41
(2) 2차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견해 ····· 41
(3) 3차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견해 ····· 42

Ⅳ. 결론 및 제언 ····· 44

참고문헌 ····· 47

ABSTRACT ····· 4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1> 1차시 수업 지도안 ····· 27
<표 2> 2차시 수업 지도안 ····· 30
<표 3> 3차시 수업 지도안 ····· 33
<표 4> 1차시 설문지 '1번 문항(음악수업 흥미도)' ····· 35
<표 5> 1차시 설문지 '2번 문항(신체활동을 통한 음악수업의 경험 유무)' ····· 35
<표 6> 1차시 설문지 '3번 문항(활동 이름으로 유추 가능 정도)' ····· 36
<표 7> 1차시 설문지 '4번 문항(수업 만족도)' ····· 36
<표 8> 2차시 설문지 '1번 문항(자기 주체적으로 연습한 시간)' ····· 37
<표 9> 2차시 설문지 '2번 문항(과제가 일정에 방해된 정도)' ····· 37
<표 10> 2차시 설문지 '3번 문항(창작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담 정도)' ····· 38
<표 11> 2차시 설문지 '4번 문항(수업 만족도)' ····· 38
<표 12> 3차시 설문지 '1번 문항(창작과 발표, 협동의 부담감 감소 여부)' ····· 39
<표 13> 3차시 설문지 '2번 문항(활동에 대한 음악교육 적용가능성 여부)' ····· 40
<표 14> 3차시 설문지 '3번 문항(활동 후 음악적 능력 향상 정도 파악)' ····· 40
<표 15> 3차시 설문지 '4번 문항(수업 만족도)' ····· 4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목차

<부록 1> 1차시 설문지 ····· 51
<부록 2> 2차시 설문지 ····· 52
<부록 3> 3차시 설문지 ····· 5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의
음악수업 활용 및 지도방안연구

박 조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 허 대 식

본 연구는 음악수업에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을 적용하여 지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기존 음악 교과에 신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음악 수업에 적용시켜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를 증대시키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하며, 음악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으로 음악교육에서 신체 움직임을 강조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신체 움직임을 적용한 음악 교육의 대표적인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교육관을 고찰하였다. 본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흥미도와 참여도, 협동심과 사회성, 자신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성취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바디퍼커션’을 적용한 수업 지도 방안을 구상하여 3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후, 각 차시마다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음악 능력의 향상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바디퍼커션’이 음악 교과 수업에 미치는 효과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바디퍼커션’은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 증대, 조별 수업을 통한 협동심 및 사회성 발달, 리듬 창작 수업을 통한 즉흥성과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음악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바디퍼커션’을 적용한 음악 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용이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신체를 활용하는 음악 수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바디퍼커션, 바디사운드, 신체 활용, 신체 표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음악교육을 시작한 이후에 학계에서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이환수, 2021) 학계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수업방식이나 음악활동이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음악성과 음악적인 수준을 고려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표현과 창작활동을 활용한다면 음악교육은 성장 할 것이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 인재를 위해 다루어져야 하는 과목이다.

신체표현은 음악에 대한 느낌과 반응을 신체적으로 나타내는 음악적 행동의 하나로써 분류되고 있다. 이는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음악적 행동을 의미하고, 무용에서의 신체표현과 같이 동작의 균형이나 형태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음악에 대한 내적인 반응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달크로즈(EmileJaques-Dalcroze)는 처음으로 유리드믹스(Eurhytymics)를 주장하여 음악교육에서의 신체표현을 강조하였고. 모든 신체의 부분을 감각 기관으로 보았다. 음악 경험에 있어서 신체의 사용은 중요하며 음악적 생각이나 느낌을 감각 기관인 신체를 통해서 표현될 때 효과가 증대된다고 주장했다.(이현수, 2021)

오르프(Carl Orff)는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 설명에 앞서서 동장이나 놀이와 같은 신체표현과 대화를 통하여 음악의 본질을 체험하는 데에 음악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쉽게 연주할 수 있는 타악기를 개발하여 음악수업에서 악기 연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 음악 활동의 기초를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쉬운 것에서부터 점차 어려운 것으로의 체계적인 발달을 도왔다. 결과적으로는 창의성 계발과 표현의 즉흥성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코다이(Zoltán Kodály) 또한 실용적, 효율적인 음악 지도를 목적으로 두어 지도하였고, 손 기호, 신체 기호 등 신체를 이용한 방법을 도입하였다. 신체 활동을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음악 경험을 위한 것이다. 이는 결국 폭넓은 음악을 가르치며, 예술적 가치를 높여간다고 하였다.

몸짓은 공동체의식을 주며 의사표현 능력, 비유적 표현,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나의 언어가 된다.

위와 같이 음악 경험에 있어서 신체의 사용은 중요하다. 신체표현을 이용하는 수업 방식은 수업에 관심을 끌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며, 학생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리듬을 창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 신장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나 지역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주어진 신체를 인식의 주체로 소리 내고 표현하는 것을 음악경험의 중요한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바디퍼커션은 신체활동에 본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용이나 체육과 같은 교과활동과 융합 수업을 할 때에도 용이하다. 2015년 음악교육과정에서는 공통의 내용체계에서 표현, 감상, 생활화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특히 표현의 핵심개념으로 '음악의 표현방법'과 '소리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의 표현방법과 소리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여 신체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음악적 경험에 중요한 역할인 바디퍼커션의 배경과 연주 방법 등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음악의 신체활동 학습 자료와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내용을 수행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리듬을 바디퍼커션으로 연주하며 신체표현의 자유로움과 리듬감을 향상시켜 바디퍼커션의 수업 활용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둘째, 바디퍼커션을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한다.

셋째, 모의수업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바디퍼커션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안점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수업은 초등교육을 이제 막 마치고 중등교육을 배우게 된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지도하였다.

둘째, 바디퍼커션 기초학습은 국내 바디퍼커셔니스트 '이상호'의 영상을 참고하여 재구성하고 적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연습과 과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3주에 한번 수업을 진행하였다.

넷째,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은 학생 각자의 시간에 할애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선행연구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체 표현과 리듬 창작 학습을 주제로 한 음악 교육 관련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박종화(1996)는 율동적 동작이 음악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체 표현을 통한 음악학습이 음악적 기본능력과 표현능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신체적인 표현에 의해 리듬의 분석·분류·통합이 이루어지면 악곡의 전체적인 해석은 물론 악곡의 암기에도 효과적이었다. 악곡을 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르고, 신체 동작을 활용하는 학습 과정은 시창, 가창, 창작, 감상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김인옥(1997)은 즉흥적인 음악 표현력 신장을 위한 단계별 지도 방안 탐색에서 즉흥적 표현력은 창의적인 음악 표현력 발달에 기저를 이루는 것으로 말하기, 신체 표현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증흥적 음악 표현 활동들은 음악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하였다.

박경덕(2002)은 달크로즈의 교수법을 활용한 리듬학습 지도방안에서 음악의 요소 중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된다는 리듬의 지도를 위해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안을 구안하여 3개월 동안 수업시간에 적용하였고, 음악적 흥미와 리듬감 향상을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리듬감, 청음력, 민첩성, 음악적 순발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음을 알아내고, 보다 단계적이고 심화적으로 수업안을 발전시켜 적용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배영언(2003)은 유리드믹스를 적용한 음악과 수업 지도안에 관한 연구에서 수업안의 활동내용을 통해 이론위주의 음악학습에서 벗어나 신체를 통한 공간상의 확대라는 개념의 음악학습을 이루었고, 놀이를 통하여 자유롭게 음악적 개념을 익힐 수 있음을 알아냈다. 또한 다양한 학년의 제재곡으로 학습안을 구성하여 다양한 적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맞은 음악교육방법이 연구되고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최진욱(2005)은 오르프의 '기초음악'의 개념과 활동방식을 이용한 창작 학습지도 방안 연구에서 창작수업에 응용한 학습지도방안을 활용하여 가락 만들기로 연구하였다. 창작 학습은 음악의 기본 개념의 이해와 체득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창의성을 길러주고 자신감과 사회성의 발달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노미연(2011)은 신체표현을 통한 음악수업 지도안 연구에서 음악수업에 신체표현을 활용하면, 정적인 음악 수업이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되고, 활기찬 음악 수업이 될 때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되며, 이런 수업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미라(2018)는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몸타(Body Percussion) 신체표현 수업 지도안 연구에서 여러 가지 리듬을 몸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리듬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 수업을 통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 리듬을 바디퍼커션으로 신체를 사용해 연주함으로써 신체표현 능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이론적 배경

1. 바디퍼커션의 이론적 배경

1) 바디퍼커션의 정의

바디퍼커션은 신체와 타악기의 합성어이다. 이는 몸을 타악기처럼 두드리면서 리듬을 만드는 행위로 악기를 연주 할 때 연주자의 몸을 사용하여 소리를 만드는 기법이나 악기의 일종이다. 이는 주로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타악기와는 다른 형태의 연주방식이다.

연주자는 손, 팔, 다리, 가슴, 무릎 등의 다양한 부위를 사용하여 몸에 소리를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소리와 리듬을 무한하게 만들어 연주 할 수 있으며, 악곡의 리듬, 속도, 감정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경험하게 하는 악기로 볼 수 있다. 악기와 함께 연주 할 때 전체적인 사운드에 깊이와 다이내믹한 요소를 추가 할 수 있고, 솔로연주와 퍼포먼스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용된다.

바디 퍼커션은 전문적인 연주자와 일반인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악기이다. 별도의 악기를 준비 할 필요 없이 몸을 사용하여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 즉시 활용 할 수 있다. 다양한 기술과 기법을 습득한다면 바디 퍼커션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리듬 구사를 시작으로 하여 학생 자체적으로 특별한 지도 없이 음악적인 창의성과 신체적인 조작을 결합하여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며, 연습과 경험을 통해 기술과 테크닉을 익히고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연주를 할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리듬을 개발하며 구체화 시키고, 학생의 창의성을 통해 리듬의 다양성을 발전시키고, 바디퍼커션 수업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통해 스스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창작자로 성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적으로는 박자감각을 기르기에도 유용하며, 다양한 사운드 조합을 형성하는 부분에서도 청각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바디퍼커션은 몸을 타악기처럼 사용하여 연주할 수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타'라고 불리기도 한다. 바디퍼커션이라는 명칭이 역사적으로 쓰여 진 적은 없지만 다른 민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현재의 정식 명칭인 바디퍼커션의 형태로 진화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이현수, 2021)

2) 바디퍼커션의 배경

바디퍼커션은 1500년대 흑인 노예무역 시대에 광부였던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바디퍼커션의 유래는 흑인노예 광부들이 일할 때 신던 부츠를 이용하여 리듬을 만든 검부츠(Gumboot)에서 시작되었는데,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던 흑인 노예들은 자신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언어로 전통음악을 부르며 악기가 없던 흑인들은 자신의 신체를 두드리며 리듬을 연주하는 형식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신체로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양식이 하나의 문화로 민족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정민재, 2019)

이렇게 시작된 바디퍼커션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발달한 플라멩고(Flamenco)와 같은 춤 동작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인간 신체의 근본인 감각에 대한 재탐구는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오르프의 신체표현과 같은 음악교수법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며, 신체를 활용한 리듬구사의 방법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음악교육에서 신체 움직임을 강조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

1) 달크로즈와 프랑스 제3공화정

달크로즈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났으나 본래 스위스 출신이었던 양친을 따라 9살에 제네바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프랑스 문화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칼뱅교의 본고장으로 16세기 이래 몇 세기 동안 반주 없는 단성부의 '시편가'만 불러야 했던 제네바에서는 그 여파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기악 음악이 억압되었고, 그 때문에 음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하여 프랑스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교회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갔다고 한다. 1848년에 스위스 연방이 정식 국가가 된 이후 특히 음악협회 설립, 독일 유명 음악가 초빙, 지역 음악회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합창과 오케스트라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멜랑(Alphonse Meylan)은 갈린-파리-슈베(Galin-Paris-Chevé 이하 슈베) '솔페즈 지도법'을 중학교 음악교육에 도입하였고, 이는 제네바 지역 중등학교 및 가창 협회에서 1911년까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악에 적합했던 이 교수법은 기악에는 적용하기 힘든데다가, 학생들이 음악이 아니라 숫자만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음악교육을 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네바의 척박한 음악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란 달크로즈는 이를 개선할 방법을 가까운 나라인 프랑스에서 찾으려 하였다.(송정주, 2019)

달크로즈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자신의 교수법을 발전시킨 때는 프랑스 제3공화정(1871-1940)의 시기로, 프랑스 정부에서는 새로 수립된 공화국을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음악 육성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인 '박애'를 증진하기 위해 음악과 춤이 동반하는 대규모 국가적인 축제를 통한 '대중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엘리트 가문들의 문화인 고급예술 음악과 프랑스 오페라 역시 도덕적·지적 영향을 줄 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는 뛰어난 문화적 유산으로 평가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생상(Camille Saint-Saëns)과 마스네(Jules Émile Frédéric Massenet)를 비롯한 여러 작곡가들은 프랑스 특유의 예술 유산인 그랑 오페라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진력하였다. 또한 1886년 무렵부터는 륄리(Jean-Baptiste Lully)와 라모(Jean-Philippe Rameau)의 춤곡에 대한 흥미가 되살아났으며, 이러한 유행이 1900년대 까지 지속되어 들리브(Clément Philibert Léo Delibes), 생상스와 같은 작곡가들은 프렐리우드(prelude), 앙트레(entrée), 사라방드(sarabande), 미뉴에트(menuet), 론도 프랑세즈(ronde française) 등의 춤곡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되살렸다.(Pasler, 2009)

한편, 프랑스 대혁명(1789)을 계기로 시작된 공교육이 더욱 확대되어 교양 교육이었던 음악교육이 시민교육으로 전환되었다. 1882년 줄레스 페리(Julles Ferry) 법에 따라 프랑스 전국에서는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 궁극적 목표인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공공 덕목을 내면화하고 개인적 희망을 심어주는 음악의 지적·도덕적·육체적 기능을 깨닫게 된 공화주의자들은 음악교육을 시민형성의 한 방도로 학교 교육에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백화점 연주회, 동물원 연주회, 심지어 서커스 활동을 소개하는 데에도 예술 음악을 이용하여 대중들이 음악을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시민 교육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음악을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프랑스의 국가와 사회적 분위기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음악과 교육활동을 하였던 달크로즈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가 신체움직임을 통한 리듬교육인 '리드미크(Rythmique)'를 고안 할 때 '댄서들의 세계를 바라보며, 한 동작에서 시작해서 다른 동작으로 이어지는 자세와 포즈, 그리고 특별히 역동적인 포즈에 대해 연구하고 동작을 스케치하였다.'라고 쓴 것과 그의 음악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말하는 신체움직임은 발레에 바탕을 둔 그랑 오페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춤 전통을 근원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송정주, 2019)

그러나 당시 과학이 크게 발전했던 제네바에서는 과학 정신이 화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결합되면서 음악의 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크로즈의 신체움직임 교육인 리트미크(Rythmique)는 지·덕·체의 총체적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교육 방안 중 하나로 고안되었다.

2) 코다이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코다이가 음악교육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한 배경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음악적 전통의 바탕에서 음악 교육의 발전을 도모한 달크로즈나 오르프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6세기부터 비엔나 합스부르크 왕조의 통치를 받아 온 헝가리는 거의 두 세기에 가깝게 오스만 터키의 통치를 겪은 후 다시 합스부르크 왕조의 통치를 받았으며, 1867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이중제국이라는 타협안 성립이 된 후에도 귀족들은 여전하게 비엔나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외국의 통치를 받아온 19세기의 헝가리에서는 전통음악이 자취를 감추었고, 독일의 기악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코다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중부 헝가리의 지역에서 태어나 지내면서 그 지역의 집시 연주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

제1차 세계대전 말까지 지속이 된 이중제국 시대 교육정책의 목표는 '문맹을 퇴치하고, 제국의 합당한 시민을 양성'하는데 있었는데, 이는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스트리아인보다 헝가리 및 기타 민족들에 주로 해당이 되었다. 따라서 최소한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읽기, 쓰기, 산수 등의 교육이 기본 교육의 목표가 되었고, 헝가리에서는 6세-12세와 15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교육이 의무교육화 되었다.(김지영, 2008) 새로 제정이 된 대중교육법규에 의하여 음악교육은 필수과목이 되었고, 헝가리 민요가 학교 음악수업의 기초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음악교과서와 교사 메뉴얼 집필을 권장했다. 그러나 음악교육의 내용 및 시스템은 여전히 독일식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척하기 위해 코다이는 1905년부터 민요 수집을 시작해서 부다페스트 리스트 음악원 후배인 바르톡(Bela Bortok)과 함께 트란실바니아, 헝가리 북부의 부코비나 지방에서 민속 음악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간직한 민요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헝가리가 트리아농 조약을 체결한 결과 국토의 상당한 부분들을 잃게 되면서 이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작업을 다시 재개하면서 그 이후에도 그의 민요 수집은 계속되었고, 모두 10만개 이상의 헝가리 민요가 보존 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코다이는 주로 성악곡에, 바르톡은 주로 기악곡에 헝가리 민속 음악적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작곡하였으며, 전통음악 어법을 재창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곡들은 당시의 헝가리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기 일쑤였고, 젠트리 계층이나 일반 대중들 역시 관심이 없었다. 이미 오랫동안 독일 음악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귀에 헝가리의 고유한 화성과 멜로디가 낯설게 들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헝가리 민요의 음악적인 요소와 원리의 대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던 코다이는 1925년 어느 날 부다 언덕에서 여학생들이 모여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수준이 놀랄 정도로 형편없어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학교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음악 작곡과 이를 전달 할 교과서의 출판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코다이는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가창 교육을 시행 할 교사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위해 헝가리 항교의 가창 시스템을 분석한 코다이는 헝가리만의 새로운 가창교육 방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코다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1927년 영국을 방문하였고, 영국 학교의 가창 교육에 자극을 받아 커웬(Jhon Curwen)의 토닉 솔파 시스템도 배워왔다.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다시 또 패전국이 된 헝가리의 실권을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창과 음악이 포함된 새로운 교육과정이 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격동적인 국가의 상황 속에서도 코다이는 꾸준하게 교육활동을 펼쳐나갔으며 1947년에 쓴 「헝가리 100년 계획」에서 모든 국민들이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음악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은 훗날의 헝가리 대중의 음악적 취향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1948년 학교가 공립화 되면서부터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교과목의 공통 교재 출간이 가능해지자 코다이와 아담(Jenö Ádám)은 일반 학교에서 사용 할 교과서를 개정했다. 1950년에는 코다이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전보다 더욱 발전된 지도법에 따른 음악교육과정이 구안되었고, 코다이의 고향에는 첫 코다이 음악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헝가리의 음악교육과 음악문화의 기틀은 코다이의 노력에 크게 힘입었음을 알 수 있다. 코다이는 헝가리의 민족음악문화 재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가창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음악을 쓰고 읽는 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신체움직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느낀 코다이는 달크로즈나 오르프 같은 타국 음악교육학자들의 기존 신체움직임 교수법을 참고하여 총체적인 음악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3) 오르프와 바이마르 공화국

칼 오르프는 독일의 제2제국(1871-1918) 시대에 뮌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평생 동안 독일에서 음악 활동을 펼쳤다. 처음으로 그가 음악교육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때로, 이 시기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틀은 마련이 됐지만, 전후처리를 위해 체결이 된 베르사유 평화조약(1919)에서 야기된 경제적으로의 어려움이 지속되던 때였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문화예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슐츠(Hagen Schultze)는 '예술적인 면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볼 수 있지만, 이는 엘리트 서클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매우 부르주아적이면서도 동시에 강한 반(反)부르주아적 감정에 영향을 받았던 문화'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청중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음악문화가 형성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교양을 갖춘 중산층이 음악문화를 주도했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로 경제·사회적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새롭게 나타나는 중산층은 전과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지 못해 과거 중산층이 수행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양을 갖추지 못한 중산층들은 음악을 오락과 유흥거리로만 즐겼기 때문에, 음악회장이나 오페라 극장은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 공연을 하여 재정난을 간신히 이겨나갔다. 또한 라디오가 보급이 되어 굳이 연주회장에 가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술 생산구조의 기반을 흔들리게 함과 동시에 예술 사업의 상업화를 촉진시켰다.(김택완, 2000) 이와 같이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음악문화가 이성적이게 사고하는 형태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1920년대 중반부터는 전문가를 위한 엘리트 음악 혹은 진지한 음악과 대중적인 음악 사이의 큰 분열이 생겨났다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무렵 19세기 전통음악예술의 예술적인 면을 부정하고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였던 신객관주의 사조가 대두되면서 형식과 음악어법이 단순화되고 엘리트주의는 퇴조하였다. 이 시기에 실용음악(Gebrauchsmusik)이 등장하였고, 힌데미트(Paul Hindemith), 브레히트(Eugen Berthold Friedrich Brecht)에 의하여 교훈극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듣는 것 위주의 음악 지도방법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직접 연주하고 참여하는 음악이었다. 엘리트만이 향유하던 절대음악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고 향유할 수 있는 음악문화가 생성된 것이다.

한편 1890년에서 1930년 사이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일어난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 운동이 독일의 음악교육계에도 확산되었다고 한다.(민경훈, 1998) 1923년 케쉬텐베르크(Leo Kestenberg)는 새로운 음악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가창수업 형태 위주의 음악수업에서 벗어나 기악과 가창, 감상활동을 통해 음악을 학생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수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프리츠 외데(Fritz Jode) 역시 일반 국민을 위한 음악교육을 주장하여 청소년과 음악애호가들을 위한 음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음악이 더 이상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평등하게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이 시기에는 신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댄스, 체조, 스포츠가 중시되어서 관련된 학교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세시대에 금욕의 대상이라고만 여겼던 신체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한 이후부터 인간에 대해 각성하고, 자유주의적 실천으로 몸에 대한 이해가 강화(박성혜, 2019)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1901년 독일의 반더포겔(Wandervogel)로 이어졌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신체는 교양있고 합리적인 현대인의 표상으로 여겨져 체육교과에 체조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 시절에는 '표현주의 춤'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마리 비그먼(Marie Wigman)은 음악에 맞춰 추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몸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처럼 오르프가 슐베르크(Orff Schulwerk)를 고안하게 된 시기는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엘리트 중심의 음악관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에서 음악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던 때였다. 이러한 사회적·문화적·국가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 오르프 역시 이성이 위주였던 절대주의 음악관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체움직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교양 있는 시민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고안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오르프는 원초적인 움직임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비그만의 표현주의 댄스를 그의 교수법에 도입하였다. 오르프 스스로 밝혔듯이 음악이 없는 비그만의 '마녀의 춤'에서 영감을 받아 찾아낸 원초적인 음악을 그의 신체움직임 교육에 적용했던 것이다.

3.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에 대안 교육관

1) 달크로즈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

달크로즈는 스위스 제네바 콘서바토리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화성학과 솔페즈 교육을 지도 할 때 학생들이 실제연주를 잘하더라도 표현력이 부족하고 이론과 실제를 연관시키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기술적인 면에서 연주를 잘 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음악을 자신만의 감정으로 표현하지 못 한다면 음악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귀로만 듣거나 소리를 내는 훈련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몸 전체를 이용해 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체적 리듬활동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는데 리듬형을 연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할생들이 걷기의 신체활동에서는 리듬형에 대한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고 누구나 음악적 리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음악교육이 인간의 선천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상상력, 사고, 신체를 표현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크로즈는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세 가지 측면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음악을 통해 인간은 통합 반응력, 집중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뉘앙스 감지, 인식력 및 표현력과 같은 것 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귀를 통하여 인지되는 음악이 인간의 내적인 감정을 자극 할 때 비로소 인간 내면에서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듣고 느끼는 것은 몸의 각 신경 및 근육 기능들과 동시에 반응하고 작용하며, 이러한 신체의 경험이 다양 할수록 신체의 발달과 음악적 능력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그의 교수법은 뒤에 소개 될 코다이와 오르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2) 코다이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

코다이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는 악기로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가창 교육을 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송정주, 2021) 음악교육은 '노래하기'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음악에 대한 좋은 취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가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코다이는 달크로즈처럼 솔페즈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달크로즈나 오르프와 달리 음악교육의 모델이 될 만한 문화가 결여된 상황에서 코다이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어 오던 손 기호와 리듬 음절 및 귀도 다레초(Guido d′Arezzo)에서 유래한 손가락 기호, 리드미크(Rythmique) 중 걷기, 달리기 등 기본적 신체 움직임 등의 교수법들을 헝가리 음악교육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송정주, 2021) 코다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신체를 움직여 익힌 리듬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솔페즈 능력 향상을 꾀하였고, 이를 통해 음악문화를 마음껏 누리는 체·덕·지가 조화를 이루는 인간 육성을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시작은 코다이가 어린이들이 민요를 부르면서 동시에 놀이하는 것을 보고 예로부터 몸의 움직임이 음악에 동반되어 왔음을 깨달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음악교육이 다양한 신체 움직임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대학에서 행했던 강의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성행했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에는 언제나 음악과 춤이 수반되었고, 노래는 신체 움직임과 연결되었다.'라고 말하며 코다이는 춤과 노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헝가리의 한 마을을 예시로 삼아 설명하기도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처럼 코다이는 노래 할 때 몸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토대로 음악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려면 신체활동과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노래와 신체 움직임이 함께하는 것이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코다이는 음악 리듬은 신체 근육 리듬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달크로즈의 생각과 일치했다.

코다이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박자를 맞추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움직임 교육을 접목하여 놀이처럼 음악을 배우는 방안을 권장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으로 노래 리듬에 맞추어 손뼉 치며 걷기 또는 손뼉 없이 걷기를 제시하였다.

이는 달크로즈의 리드미크를 도입한 것이지만, 지도 할 때 리듬 연습을 피아노 반주에 맞추지 않고 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달크로즈는 전신을 움직이며 음악을 표현했지만 코다이는 특히 손의 움직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코다이는 대체로 몸의 부분적인 움직임을 위주로 음악 요소들의 표현을 지도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오르프의 신체 움직임 교육관

오르프는 동작을 통한 음악활동은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음악교육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학생들의 춤과 음악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오르프는 어떻게 하면 음악과 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학생의 춤을 반주할 음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오르프는 키트만(Gunild Keetman)과 함께 1920년대부터 「슐베르크」를 개발하였다.(송정주, 2021)

오르프 음악교육사상은 「슐베르크」와 그의 자서전을 비롯한 논문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기본 유의사항은 작품을 다루는 과정이 즉흥적이고, 실험적이며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르프는 신체표현을 음악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면서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라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슐베르크에는 원초적인 움직임, 즉 원초적인 춤을 통해 음악을 부활시키려 했던 오르프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오르프는 음악적 이해가 거의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음악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내적 리듬을 의식하게 하거나 해방하는 것에 표현과 창의성 통합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리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음악적인 개념을 신체로 표현하고,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도록 해야 하며 걷는 것이나 뛰는 것 등의 기본적인 몸의 동작을 음악적인 면으로 활용해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신체적 움직임을 음악적 개념으로 형성하는 활동적인 음악수업은 결과적으로 음악과 신체 움직임은 함께 가르쳐야 하고 이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보완 한다고 보았다.(송정주, 2021)

4. 신체표현 및 바디퍼커션이 수업에 미치는 효과

음악은 우리들의 신체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형성하기도 한다.(J.Mursell, 신도웅 역, 1987) 그리고 음악은 신체 반응을 유발시키며,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을 때에 심장박동수도 함께 빨라져 신체를 그 빠르기에 맞추어 움직이게 되고, 반면 느린 템포의 음악에서는 몸을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노미연, 2011)

신체표현은 이러한 움직임의 성격과 시간성, 그리고 추상성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보다 쉽게 음악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만나게 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이정근, 2003)

신체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상력과 사고력을 발휘하여 신체를 직접 표현함으로써 창의력이 향상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하며, 학생들이 주체적이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체표현을 통해 집단별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길러지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게 된다.(양주미, 200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신체표현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표현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이 골고루 되기 때문에 신체표현 능력이 향상되면서 보다 정확하고 표현력이 높은 연주가 가능하게 된다. 신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리듬을 표현하게 되면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과 즉흥연주 능력이 골고루 발달 하는데 효과적이다.

바디퍼커션은 음악적으로 박자 감각을 기르고 리듬 표현 능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두드리는 본능적인 활동이 심리적 안정감과 해방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게 된다.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생활화, 표현, 감상의 세 영역 중 표현의 핵심개념은 '음악의 표현 방법', '소리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의 표현 방법과 소리의 상호 작용 방법을 이해하여 음악 만들기, 노래, 연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소리의 이해를 위한 총체적인 음악 경험에서 신체의 주체적인 활용 가능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문화나 연령에 관계없이 음악에 반응하여 발로 박자를 맞추거나 몸을 두드리며, 바디퍼커션으로 음악에서 느끼는 강세를 표현 할 수 있다. 바디퍼커션은 연주되는 음악에 적응해 감으로써 자신이 주의 깊게 음악을 들었으며 들은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다시 말해 음악을 지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홍수, 1990)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하다. 바디퍼커션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습자의 관심을 끌어 수업에 주의 집중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때문에 학습자가 수업의 내용에 흥미를 가질 때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다.

바디퍼커션은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의 심미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음악 수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신체를 활용하는 활동은 음악의 시각화영역, 음악적 느낌묘사영역, 음악에 대한 무용 영역, 신체악기영역, 운동감각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악의 시각화영역에서의 '음악의 시각화'란 물체, 그림, 카드 등을 통한 시각적 접근이나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음악의 인지를 시각적으로 돕는 것이다. 스타카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엑센트 등의 음악적인 표현을 신체적 움직임으로 반응하여 시각화 되지 않는 음악을 시각화 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된다. 즉, 음악적 경험이 부족한 학생에게 심미적인 감상을 할 때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음악적 느낌묘사 영역에서는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 음악의 느낌을 표현하여 창의적이면서 자유롭게 음악의 느낌을 묘사하는데, 이 영역은 시간의 제약도 비교적 적다. 또한 협동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무용영역은 무용을 통해 음악을 운동감각적으로 체득하여 더 흥미롭고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무대공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음악과 신체적 움직임이 통합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단계에서는 성취감을 줄 수 있다. 신체악기 영역은 신체를 악기로 사용하여 소리 내는 교수학습방법영역으로 신체악기를 통하여 음악적 표현력과 창의력이 신장되며 신체의 여러 가지 악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독창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낸다. 운동감각적영역은 인지되는 감각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제자리 걷기, 천천히 걷기, 빠르게 걷기, 신체 흔들기 등의 음악에 따른 움직임을 갖는다. 음악에 따라 지각한 것을 반응함으로써 음악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움직임에 대한 음악성 신장의 발판이 된다.(노미연, 2011)

5.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과 영역 고찰

1)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음악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 창의성, 감성을 발휘하여 음악 활동을 하며, 일상의 공동체 내에서 음악적으로 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의 핵심 역량 및 인간상과 연계하여 ‘창의성 역량, 자기주도성 역량, 감성역량,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을 음악 교과의 역량으로 설정하여, 내용 체계 및 영역을 구성함으로써 핵심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음악교과 역량은 총론의 핵심 역량 중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성 사고 역량' 등 각각의 역량을 음악 교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며, 총론에서의 '지식 정보처리 역량'은 음악 교과의 내용체계 및 영역 전반에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영역은 일상 속 음악 활동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악기와 목소리 등으로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음악으로 창작하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연주-창작-감상'의 세 가지의 영역 활동은 생활 속 맥락에서 음악의 특성이나 고유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다양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는 활용, 맥락, 원리라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문장으로 진술된다.

영역별 내용의 체계는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능·과정', '태도·가치', '이해·지식'의 세 범주별로 내용 요소가 구성되는데, 이는 성취기준을 설정 할 때 기초가 된다. 즉 '기능·과정', '태도·가치', '이해·지식'에 제시된 내용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진술한다면 이로써 성취기준이 되는 것이다.

먼저 '기능·과정'은 영역별 이해를 위한 전략, 과정, 방법으로서 인지적·연계적·실천적·신체적 기능으로, '태도·가치'는 사회적 및 개인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음악적 가치화와 태도로 구성된다. '이해·지식'은 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음악의 장르나 유형을 포괄하는 내용적 지식, 음악 범위와 더불어 <음악> 교과에서는 수행하는 자체가 주요가 되는 지식이고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학습 시 초점, 절차적 지식이 핵심 요소와 관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이 된 영역별 내용의 체계는 실제로 수행한다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연주 영역'을 우선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영역인 '창작 영역'은 감상, 연주 등 다른 활동들을 기반으로 보다 쉽게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시가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성격 및 목표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하는 예술이면서 문화·사회적 양상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간의 활동적 산물이다. 인간은 음악을 듣고 만들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활동들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다른 것으로는 대체 할 수 없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음악적 능력을 계발하면서 음악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담은 음악적 표현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표출하고 표현 할 뿐만 아니라, 음악과 소리가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 등을 통해 행복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이처럼 음악 활동은 개인의 음악적이고 정서적인 발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인적 성장도 이끈다. 인간은 일상 속에서의 협력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 균형감·자존감·책임감과 같은 인성을 함양시키고, 계층·세대·지역 간의 음악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사회적·정서적·음악적 성장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에서의 음악 문화는 사회, 인간, 문화를 공감하고 예리하게 관찰 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며, 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계승을 이끈다.

최근에 들어서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음악의 영향력과 가치가 더욱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적·전통적·예술적·실용적 가치를 전부 아우르는 우리 음악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악에 대한 안목과 시각을 넓혀 여러 문화 산업 발전을 선도한다. 덧붙여 다양한 여러 가지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음악 활동을 함으로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시키고 미래의 디지털 기반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서 음악을 통하여 공감력과 표현력은 문화와 사회 속에서의 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확장시키며 생태계나 자연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감하는 감수성으로 전이되어 학습자가 살아갈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음악 교과는 이처럼 환경·과학·산업·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음악을 포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음악적인 발달을 이끌어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또한 '음악 교과'는 주도적인 음악적 활동을 하면서 '음악'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창의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전인적 성장을 증진하는 교과이다.

이런 점에서 중학교에서의 <음악> 과목은 학생이 다양한 가치와 음악의 본질에 대한 경험을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음악을 활용하여 가치관과 문화·사회적 안목을 주체적으로 형성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악> 과목의 어려워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성, 창의성, 감성을 가지고 창작, 감상, 연주 등의 음악 활동을 하며 민주적인 공동체의 발전과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적 소통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초등학교에서의 '음악 교과'는 생활 속의 태도, 기능, 음악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을 학습하고 학생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향유자 및 음악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만 중학교에서의 '음악 교과'는 문화나 사회 속에서의 음악적 기능, 다양한 태도,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을 가치화하고 학생들의 음악적 발달을 도우며 미래지향적인 능동적인 음악 문화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중학교에서의 <음악>이라는 과목은 음악의 핵심적인 이해·지식, 기능·과정, 태도·가치를 포괄하는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감성을 기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3) 교수·학습의 방향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음악> 과목의 목표와 성격,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경험 될 수 있도록 하며, 학습하는 사람의 생활과 연계하여 소통, 공동체, 자기주도성, 창의성, 감성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음악> 과목의 교수·학습은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영역별 가치·태도, 기능·과정, 이해·지식이 실생활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능동적으로 <음악> 수업에 참여하여 음악적인 이해가 실제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이어지는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음악> 과목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 속에서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 간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악적 학습 능력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위와 관련하여 중학교의 음악 수업 각 영역에서의 교수·학습 방향을 고찰해보자면 '연주 영역'에서는 실용적·예술적·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여러 가지 악곡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악기 연주와 노래를 부르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공동체와 소통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감상 영역'에서는 실용적·문화적·예술적·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음악을 듣고 반응을 함으로써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창작 영역'에서는 음악의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자신의 상상과 느낌, 아이디어와 의도 등을 음악으로 새롭게 표현 할 수 있음을 알고 음악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바디퍼커션을 적용한 수업지도안

1. 바디퍼커션을 적용안 지도방안 구안

1) 바디퍼커션 수업 설계

본 연구는 중학교 1-2학년 그룹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학생의 수는 6명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일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바디퍼커션에 적응하고, 과제를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2-3주에 1차시씩 총 3차시의 지도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는 리듬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소리에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체를 활용한 바디퍼커션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 단계에서는 그룹의 학생들에게 바디퍼커션 수업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소한 바디퍼커션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안내하고, 수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차시 수업에서는 1차시에서 진행했던 수업을 상기시키며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도입단계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신체의 소리를 이용한 리듬 창작을 중점에 둔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2차시 수업은 악보와 같은 박자표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창작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에 의미를 둔다.

3차시 수업은 음악에 맞추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고 주체적이게 표현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활동에 녹여내어 바디퍼커션의 창작과 활용을 통한 성취감, 그리고 학생들 간의 협동심을 중점에 둔다. 이 과정에서 각 차시마다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의 선호도와 보완점을 분석하여 음악 수업에 끼치는 영향과 지도자가 수업을 진행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차시별 지도계획

(1) 1차시 수업 지도안

1차시 수업은 첫 수업인 만큼 학생들이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음악교육의 소재인 바디퍼커션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흥미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수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시키는 요소로 바디퍼커션이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한 시청각 자료를 동기 유발 단계에서 준비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첫 인상처럼 바디퍼커션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흥미 유발을 위한 시청각 자료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게 된다면 자칫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 4분을 넘지 않는 영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바디퍼커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은 음악에 맞춰 연주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신체를 많이 활용하며 목소리나 음율을 이용한 외국의 한 그룹의 바디퍼커션 합주 영상을 준비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소리'에 대한 넓은 범위를 스스로 설정 할 수 있는 점에서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합주 영상 '감상'을 먼저 하게 되면 신체 표현을 활용한 리듬수업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능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이어서 학습목표를 알아보고 전개단계로 넘어가 바디퍼커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전개단계 에서는 자신의 신체 여러 부분을 두드리면서 소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창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지도자가 먼저 예시로 몇 가지 신체를 활용한 소리를 들려주어 약간의 도움을 주도록 한다. 지도자는 신체를 사용하여 낼 수 있는 소리를 발 구르는 소리와 같은 저음, 허벅지나 어깨 가슴을 치는 중음, 손뼉치기, 손가락 튕기기 같은 고음을 나누어 각각의 소리를 2-3가지를 창작하도록 하였다. 예시를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소리를 창작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되 창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주의하며 지도하도록 한다. 또한 예시를 제시한 후에도 학생이 소리 창작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도 지도자가 놓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리단계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처음 접해 본 바디퍼커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활동 시작 전 지도자의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의 바디퍼커션과 1차시 활동이 끝난 후 바디퍼커션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바디퍼커션에 대한 생각 발표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각자 창작한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이유는 왜인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이 창작한 소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지도자가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피드백을 할 때에도 실력위주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닌 학생들의 창의성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함으로써 기능위주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후 차시를 시작하기 전 이야기 하였던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다음 차시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며, 학생들이 다음 차시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차시와 차시 사이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업이 없을 때에도 바디퍼커션에 대해 틈틈이 상기 할 수 있도록 다음 차시까지 해 올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 1차시 수업 지도안

<table>
<tr><td>지도 대상</td><td colspan="2">중학교 1-2학년</td><td>차시</td><td>1/3</td></tr>
<tr><td>학습 주제</td><td colspan="4">신체 표현과 바디 퍼커션에 대한 이해</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4">몸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소리를 스스로 창작 할 수 있다.</td></tr>
<tr><td>단 계</td><td colspan="3">교수 · 학습 활동</td><td>지도상의 유의점</td></tr>
<tr><td rowspan="3">도입</td><td>인사 및 소개</td><td colspan="2">- 인사 및 수업 과정의 안내 및 설문조사 동의 받기</td><td></td></tr>
<tr><td>동기유발</td><td colspan="2">- 해외의 Body Percussion 영상 시청하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b-2VsE2y-U</td><td></td></tr>
<tr><td>학습 목표 제시</td><td colspan="2">- 몸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소리를 스스로 창작 할 수 있다.</td><td></td></tr>
<tr><td rowspan="2">전개</td><td>학습 활동1</td><td colspan="2">- 바디퍼커션(Body Percussion)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 교사의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 시범 보이기</td><td></td></tr>
<tr><td>학습 활동2</td><td colspan="2">- 신체 악기를 통해 소리 형성</td><td>소외 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도하기</td></tr>
<tr><td rowspan="2">정리</td><td>형성 평가</td><td colspan="2">- 각자 창작한 소리 발표</td><td>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td></tr>
<tr><td>마무리 및 다음 차시 소개</td><td colspan="2">- 다음 차시 소개
▶ 신체 악기를 통한 창작 리듬 발표 및 활용
- 설문지 응답
- 과제 제시
▶ 신체 악기를 이용하여 리듬 창작 2가지 이상
- 마무리</td><td></td></tr>
</tabl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2차시 수업 지도안

2차시 수업에는 1차시에서 학생들이 창작하고 형성한 소리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리듬을 창작하는 수업을 진행시키려고 하였다.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에서 드러나듯이 박자표와 같이 기본적인 틀이 되는 형식에서 벗어나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에 기본을 두어 수업지도안을 구안하였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과 가볍게 수업이 없는 기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하며 분위기를 상기시키며 다 같이 인사를 한 후 2차시 활동의 수업 과정과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한다. 학습 목표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1차시에서 중점이 된 '소리'와 2차시의 중점이 되는 '리듬'의 차이에 대해서 음악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후 전개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단계에 들어가서는 1차시의 정리단계에서 지도자가 제시하였던 과제를 발표한다. 학생들이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서로가 창작한 과제를 보면서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고, 지도자는 학생들의 의견에 덧붙여지게 피드백을 이어지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번 차시에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마친 후 학생들이 창작에 대한 생각을 어렵게 가지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을만한 TV예능에 나왔던 영상을 보여주며 짧은 시간에 학생들의 흥미를 이끎과 동시에 보여준 영상과 같이 반드시 형식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간단하고, 반복적이어도 된다. 또한 창의적이고 개인의 성격과 특징이 나타나는 리듬이어도 좋다고 말하며 지도자는 학생들의 창작에 대한 자신감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함으로써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다. 이후 활동을 진행하면서는 창작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심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 시간이 모자라 촉박함을 느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차시를 마무리를 하는 정리단계 중 '형성평가'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창작한 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각 학생들이 창작한 리듬을 발표 할 때마다 1차시와 비슷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지만 차이점을 둔다면 학생들의 고민한 흔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덧붙여 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마친 후에는 이번 차시 활동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서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지도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설문지의 '5번 문항' 서술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드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눈 후 설문지를 배분하여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지고 지도자는 다음 차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2차시에서는 학생들의 의견과 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차시를 위한 준비 과제 수행부터 개별 학습이 아닌 2인이 1조가 되어 '소통'과 '협동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별 과제'로 제시하였다. 준비 과제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인 부분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별로 노래를 정하고 해당 곡의 1절에 맞추어 바디퍼커션 리듬을 만들고 연주하는 것을 제시한다. 덧붙여 과제로 제시한 노래의 선정은 3차시 수업의 1주일 전까지 선정하여 연습을 진행 할 것을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 2차시 수업 지도안

<table>
<tr><td>지도 대상</td><td colspan="2">중학교 1-2학년</td><td>차시</td><td>2/3</td></tr>
<tr><td>학습 주제</td><td colspan="4">즉흥연주에 대한 이해와 자기 주체적 표현</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4">신체의 소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즉흥적인 리듬을 창작 할 수 있다.
창작한 리듬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tr>
<tr><td>단 계</td><td colspan="3">교수 · 학습 활동</td><td>지도상의 유의점</td></tr>
<tr><td rowspan="2">도입</td><td>인사</td><td colspan="2">- 인사 및 수업 과정의 안내</td><td></td></tr>
<tr><td>학습 목표 제시</td><td colspan="2">- 신체의 소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즉흥적인 리듬을 창작 할 수 있다.
- 창작한 리듬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td></td></tr>
<tr><td rowspan="2">전개</td><td>학습 활동1</td><td colspan="2">- 전시 학습 확인 및 과제발표
▶ 학생간의 피드백
▶ 교사의 피드백</td><td>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방향성 잡기</td></tr>
<tr><td>학습 활동2</td><td colspan="2">- 피드백을 반영한 새로운 리듬 만들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ggFjBHyvwE</td><td>짧은 시간 방향성 제시 및 흥미 유발</td></tr>
<tr><td rowspan="2">정리</td><td>형성 평가</td><td colspan="2">- 각자 창작한 리듬 발표</td><td>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td></tr>
<tr><td>마무리 및 다음 차시 소개</td><td colspan="2">- 다음 차시 소개
▶ 조별 바디퍼커션 연주
- 설문지 응답
- 과제 제시
▶ 2인이 1조를 이뤄 노래 선정
▶ 노래의 1절에 맞춰 조별로 연습
- 마무리</td><td>노래 선정은 교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td></tr>
</tabl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3차시 수업 지도안

3차시 수업에서는 마지막 차시인 만큼 이제까지의 수업에서 배운 바디퍼커션의 기초를 활용하여 합주를 통한 학생들의 협동심 고취와 성취감에 목표를 두어 수업지도안을 구안하였다.

2차시가 마무리 된 후 조별 곡 선정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지도자는 수업이 없는 때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차시와 차시 사이의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 할 때에 필요한 피드백을 하여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3차시 수업을 시작하면서 가볍게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근황을 나누며 분위기를 상기시키고 수업의 과정을 학생들에게 안내한 후, 학습 목표를 제시하며 다같이 읽어 보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이 악곡에서 자유롭게 표현한 바디퍼커션의 활용과 과제 수행에 이어서 3차시 활동이 '협동'에 초점을 맞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할 수 있게 한다.

전개에서는 각 조별로 왜 해당 노래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선정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발표가 끝난 후 '학습활동2'로 들어가게 되는데 '학습활동2'에서는 조를 소개하는 바디퍼커션 구호를 만드는 준비활동과 앞서 수행한 과제에서 활용한 바디퍼커션을 토대로 한 곡을 완성시키는 본 활동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학습활동2'의 준비활동에서는 조를 소개하는 바디퍼커션 구호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조원과의 합을 맞추며 사회성, 즉흥성, 창의성, 협동심과 같은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어 본 활동인 전 차시 과제를 이어나가 각 구역에서 조원과 곡 하나를 완성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본 활동을 하면서 주의 할 점으로는 바디퍼커션 동작이 1절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는 2차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이다. 2차시와 같은 이유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본 활동을 진행할 때에 지도자는 각 구역마다 틈틈이 순회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창작하는 과정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약간의 피드백을 하며 자신감을 북돋는 역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한다.

활동 후 정리단계의 형성 평가를 통해 조 소개 구호와 창작 바디퍼커션을 활용한 곡 연주 발표를 할 때에 지도자는 다른 조들의 호응하게 유도한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 모두가 알만한 곡을 선정해서 바디퍼커션을 적용한 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정한 곡의 분위기에 휩쓸려 지도자가 통제하지 못 할 정도로 산만해지지 않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조가 발표를 마치게 되면 동료평가 시간을 가지도록 한 후, 1-3차시까지의 전체적인 바디퍼커션 수업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각 학생마다 발표하도록 하는데, 지도자는 설문지에 기재되지 않은 수업을 하기 전 바디퍼커션의 첫 이미지와 바디퍼커션 수업을 마치고 난 후의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참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고 학생들과 전체적인 바디퍼커션 수업을 마무리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 3차시 수업 지도안

지도 대상	중학교 1-2학년	차시	3/3
학습 주제	바디퍼커션의 음악적 활용 및 적용		
학습 목표	창의적이고 다양한 동작으로 바디퍼커션을 연주 할 수 있다. 조별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인사	- 인사 및 수업 과정의 안내	
	학습 목표 제시	- 창의적이고 다양한 동작으로 바디퍼커션을 연주 할 수 있다. - 조별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전개	학습 활동1	- 전시 학습 확인 및 과제발표 ▶ 노래를 선정한 이유 발표	
	학습 활동2	- 조를 소개하는 바디퍼커션 구호 만들기 - 노래의 1절에서 활용한 바디퍼커션을 활용하여 한 곡 완성시키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틈틈이 순회 지도하기
정리	형성 평가	- 조별로 바디퍼커션 조 소개 및 연주 발표	조별 발표 시 호응 유도를 하며, 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도하기
	수업 마무리	- 동료평가 ▶ 한 줄 피드백 - 설문지 응답 - 수업 전체 마무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차시별 설문조사 응답 분석

수업에 참여 할 학생들을 모집하기 전 학부모님들께는 전달 된 사항이지만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1차시 수업의 동기 유발 단계 직전에 인사와 소개를 하면서 설문조사 동의 여부를 묻고 시작하였으며, 차시 당 총 5가지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도자는 일부 학생들의 자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연락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기도 하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1) 1차시 수업 설문조사 응답 분석

1차시 설문지에 대한 결과부터 보자면 1번 문항은 학생들이 평소에 음악이라는 교과에 대한 흥미도에 관한 문항이다. 총 다섯 가지 보기로 분류하였고, '보통이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적은편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적은편이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각각 16.67%로 나타났다. 2번 문항에서는 '바디퍼커션'과 같은 신체활동을 통한 음악수업을 접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처음 접해 본 학생들의 수를 파악하여 후에 모둠조직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처음 들어 본 학생들이 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체활동을 겸한 음악수업이 있다는 것을 들어만 본 학생이 16.67%,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학생 16.67%, 기타에서 SNS에서 접하여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경험해 본적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16.67%로 나타났다. 3번 문항은 '바디퍼커션'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직역이 가능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유추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바디(Body)'만을 보고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인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학생이 33.33%, 단어 자체를 하나로 보아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학생이 50%, 관심이 없는 학생이 16.67%로 나타났다. 1차시 활동을 마친 후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50%로 가장 많았고, '매우 좋았다.'가 16.67%, '약간 좋았다.'가 33.33%로 나타났다. 마지막 5번 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항은 주관적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문항으로 서술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1차시에서 지도자가 보완하면 좋을 점과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작성하도록 독려하며, 최대한 빈칸으로 두지 않도록 하였다. 위 문항에 대한 결과 도출은 다음 <표 4>,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4> 1차시 설문지 '1번 문항(음악수업 흥미도)'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높은 편이다.	0	0	
높은 편이다.	1	16.67	16.67
보통이다.	3	50	66.67
적은편이다.	1	16.67	83.34
매우 적은편이다.	1	16.67	100
합계	6	100	

<표 5> 1차시 설문지 '2번 문항(신체활동을 통한 음악수업의 경험 유무)'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처음이다.	3	50	50
들어만 봤다.	1	16.67	66.67
경험해본 적이 있다.	1	16.67	83.34
현재 비슷한 수업을 받고 있다.	0	0	83.34
기타	1	16.67	100
합계	6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6> 1차시 설문지 '3번 문항(활동 이름으로 유추 가능 정도)'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0	0	0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2	33.33	33.33
전혀 알지 못했다.	3	50	83.34
관심 없었다.	1	16.67	100
기타	0	0	100
합계	6	100	

<표 7> 1차시 설문지 '4번 문항(수업 만족도)'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좋았다.	1	16.67	16.67
약간 좋았다.	2	33.33	50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3	50	100
생각보다 별로다.	0	0	100
아주 별로다.	0	0	100
합계	6	100	

2) 2차시 수업 설문조사 응답 분석

2차시 설문지에 대한 응답 분석이다. 1번 문항은 1차시가 마무리 된 후 과제에 투자한 시간에 대한 문항이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첫 수업 후에 흥미를 가지고 연습한 시간을 알아보고자 한 문항이다. 수업이 없는 2주간 연습한 시간은 60분(1시간)-90분(1시반 30분)이 50%로 제일 많았으며, 30분~50분이 33.33% 10분~30분이 16.67%로 나타났다. 2번 문항은 과제에 투자한 시간이 일상적인 학교 수업이나 학원 일정에 방해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50%이고, '그렇지 않다.' 33.33%, '전혀 그렇지 않다.' 16.67%로 학생 개인의 일정에 크게 방해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였다. 3번 문항은 과제와 활동에서 진행한 즉흥적인 리듬 만들기와 창작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학생들이 느끼는 정도를 알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33.33%로 합이 과반 수 이상 나왔으며,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가 16.67%를 나타내며 2차시 수업 활동인 창작과 즉흥적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부담과 어려움을 준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2차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4번 문항에서는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생각보다 별로다.’라는 답변이 동일하게 33.33%로 나타났으며 알아 본 결과 과제보다는 활동에서 즉흥적으로 리듬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다. 위 문항에 대한 결과 도출은 다음 <표 8>,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표 8> 2차시 설문지 ‘1번 문항(자기 주체적으로 연습한 시간)’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전혀 하지 않았다.	0	0	0
10분~30분	1	16.67	16.67
30분~50분	2	33.33	50
60분(1시간)~90분(1시간 30분)	3	50	100
2시간 이상	0	0	100
합계	6	100	

<표 9> 2차시 설문지 ‘2번 문항(과제가 일정에 방해된 정도)’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그렇다.	0	0	0
그렇다.	0	0	0
보통이다.	3	50	50
그렇지 않다.	2	33.33	83.33
전혀 그렇지 않다.	1	16.67	100
합계	6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0> 2차시 설문지 '3번 문항(창작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담 정도)'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그렇다.	1	16.67	16.67
약간 그렇다.	2	33.33	50
보통이다.	2	33.33	83.33
그렇지 않다.	1	16.67	1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100
합계	6	100	

<표 11> 2차시 설문지 '4번 문항(수업 만족도)'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좋았다.	1	16.67	16.67
약간 좋았다.	1	16.67	33.34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2	33.33	66.67
생각보다 별로다.	2	33.33	100
아주 별로다.	0	0	100
합계	6	100	

3) 3차시 수업 설문조사 응답 분석

3차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보자면 1번 문항은 2차시에 비하여 창작과 발표의 부담감과 2차시 과제인 협동하는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이다.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66.67%,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33.33%로 학생들은 2차시에 비하여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부담감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답변했다.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지도자의 피드백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협동하는 부분에서 온전히 혼자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덜어진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2번 문항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바디퍼커션'의 음악교육 적용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문항이다. '매우 좋을 것 같다.' 33.33%, '좋을 것이다.' 50%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많았다. 개인 연습이 가능하고 별도의 악기가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표현 하는 장점을 느꼈다고 한다. '보통일 것이다.'라고 답한 학생은 16.67%로 나타났으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도자 1명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한 학급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지금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일일이 신경 쓰기가 힘들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3번 문항은 '바디 퍼커션'을 통한 음악수업의 후 본인의 음악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자가 점검을 하는 문항이다. 답변 항목에는 '대체로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가 각 33.33%로 총 66.67%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우선 이번 '바디 퍼커션' 수업을 통해 음악교과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노래를 듣게 되면 어떠한 리듬으로 '바디 퍼커션'에 적용 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리듬을 머릿속으로도 만들어보기도 하며 '리듬'과 '창작'영역에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은 각 16.67%로 3년 이상 음악학원을 통해 음악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16.67%로 음악에 대한 흥미도가 오른 것은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음악적 지식은 잘 모르겠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3차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4번 문항에서는 '매우 좋았다.'가 50% '약간 좋았다.'가 33.33%로 나타났으며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차시가 나아가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본인들이 창작한 리듬으로 연주를 하는 것과 조원과 함께 상의해서 하는 활동도 즐거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다. 위 문항에 대한 결과 도출은 다음 <표 12>, <표 13>, <표 14>, <표 15>와 같다.

<표 12> 3차시 설문지 '1번 문항(창작과 발표, 협동의 부담감 감소 여부)'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그렇다.	2	33.33	33.33
그렇다.	4	66.67	100
보통이다.	0	0	100
그렇지 않다.	0	0	10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100
합계	6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3> 3차시 설문지 '2번 문항(활동에 대한 음악교육 적용가능성 여부)'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좋을 것 같다.	2	33.33	33.33
좋을 것 같다.	3	50	83.33
보통일 것이다.	1	16.67	100
별로일 것이다.	0	0	100
매우 안 좋을 것이다.	0	0	100
합계	6	100	

<표 14> 3차시 설문지 '3번 문항(활동 후 음악적 능력 향상 정도 파악)'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그렇다.	0	0	0
대체로 그렇다.	2	33.33	33.33
약간 그렇다.	2	33.33	66.66
그렇지 않다.	1	16.67	83.33
모르겠다.	1	16.67	100
합계	6	100	

<표 15> 3차시 설문지 '4번 문항(수업 만족도)'

	학생 수(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좋았다.	4	66.67	66.67
약간 좋았다.	2	33.33	100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0	0	100
생각보다 별로다.	0	0	100
아주 별로다.	0	0	100
합계	6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각 차시별 ‘5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견해

차시마다 5번 문항에서는 학생들에게 해당 수업에 대해 지도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이유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술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중복된 답변은 하나로 처리하였다. 이 견해들을 보았을 때,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만족감을 보이고 효과적인 수업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차시마다 실제 활동을 한 후 학생들이 쓴 주관적 견해이다.

(1) 1차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견해

1차시 수업 후 ‘바디 퍼커션’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디퍼커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어색했지만 수업 자체는 재미있었다.

둘째, 선생님이 시범을 먼저 보여주셔서 처음 시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셋째, 동기유발 영상이 신기해서 앞으로 더 잘 하고 싶었다.

넷째, 다른 악기가 필요하지 않고 몸으로만 연주가 가능한 것이 신기했다.

1차시 수업은 학생들이 ‘바디 퍼커션’의 친밀감을 제고하기 위해 ‘흥미’에 관한 부분을 중점으로 수업하였다. 학생들은 ‘바디 퍼커션’에 대해 생소함을 느꼈지만,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위와 같이 지도자가 구상한 수업 지도안 작성 의도에 가까운 반응들을 보였으며, 대체로 흥미로웠다는 학생들의 견해들을 볼 수 있었다.

(2) 2차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2차시 수업 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학생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습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줄었다.

둘째,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셋째,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

넷째, 혼자서 리듬이나 동작을 만들기에 힘들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섯째,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칭찬해줘서 자신감이 생겼다.

2차시 서술형 설문에서는 '창작'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로 인해 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혼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 학생들이 다수였다. 지도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도움이 되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 학생의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 학생의 의견이므로 보완 할 방법이 필요했다. 이를 보완 할 방법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조별 수업으로 변경하였고, 조원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혼자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음 차시의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3) 3차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3차시 수업 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학생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번만큼 어렵지 않았어요.

둘째,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을 조율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셋째. '바디 퍼커션'을 배우고 음악이 재미있어졌어요.

넷째,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3차시 설문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활동 전반에 대한 답변 작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바디퍼커션'의 교육적 활용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중복이 많았던 학생들의 답변은 이전 차시 '창작'에 대한 부담감이 조별 활동을 통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답변이었다. 혼자보다는 조원과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를 이끄는 것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였다. 물론 조원과 의견이 대립되어 의견이 달랐던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고, 협의하면서 지도자가 추구했던 '협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짧은 시간 '바디퍼커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며 수업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답변도 많았으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연습시간을 늘려 활동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음악교과수업 시간 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학생은 음악교과수업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때 집중하여 수업을 듣고 그것을 바디퍼커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본 활동은 학생들은 감정의 조화와 소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경험함으로써 예술적 감수성, 심미안을 기르고, 타인과의 조화와 상호 소통을 통하여 음악의 즐거움과 미적 가치에 대한 탐구 자세를 공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디퍼커션'의 교육적 활용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결론 및 제언

‘바디퍼커션’은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와 리듬을 창작하는 활동으로 기존의 음악 수업의 형태에서 신체적 움직임을 더한 교수학습 활동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 교육에서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와 리듬을 창작하는 활동인 ‘바디퍼커션’의 음악수업 활용 및 지도방안 연구에 있다.

이 글에서는 ‘바디퍼커션’의 음악수업 활용 및 지도방안연구에 대하여 본 활동의 표현 주체인 신체를 기반으로 음악수업에 기존보다 좀 더 학생들에게 쉽게 흥미를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활용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바디퍼커션’은 움직임을 통한 표현활동과 신체로 소리를 내는 활동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동작-소리 경험, 신체 감각 능력, 표현 능력 신장, 지속적인 박자 흐름에서 패턴 지각 및 인지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체를 통한 소리와 리듬의 창작과 성취감 및 협동심을 중심으로 지도안을 구상하여 3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지도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시에서는 ‘바디퍼커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소리창작을 하며 ‘바디퍼커션’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며 거리감을 줄인다. 이를 통해 ‘바디퍼커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2차시에서는 신체를 통해 낼 수 있는 소리로 리듬을 창작하여 즉흥적인 리듬을 창작하고, 자유로운 신체 표현을 하며 자유로운 신체표현을 경험 하며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효과성을 확인 할 수 있다.

3차시에서는 조별 활동을 통해 조원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면서 과제와 활동을 통해 창작에 대한 성취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차시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을 ‘바디퍼커션’으로 표현하게 되면 신체의 표현 능력과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리듬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둘째, 신체를 사용하여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하고 강약의 개념을 적용하고, 또한 이를 변용하여 세게-여리게, 빠르게-느리게와 같은 활동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조별 수업을 통해 개인의 책무성과 협동심을 형성하고 수업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넷째, 노래와 같이 반주가 있지 않더라도 소리 창작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표현하며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미연(2011)의 연구결과에서 음악 수업이 생동감 있고, 활기찰 때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미라(2018)의 연구결과에서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리듬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 수업을 통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 리듬을 바디퍼커션으로 신체를 사용해 연주함으로써 신체표현 능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바디퍼커션은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생들이 신체표현과 창작활동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신체 표현 능력과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서 연구대상의 인원수와 한정된 연령대에 대한 이유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인원수를 증가시킴과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확장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차시 당 설문지의 문항 수가 적고 구체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문지의 문항 수를 늘리고 문항을 구체화 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차시가 끝난 후에만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일상에서도 모바일로 설문을 진행하여 연구 결과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바디퍼커션을 활용한 음악 수업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 능력과 협동심, 자신감, 성취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수업 개발을 위해 충분한 분석과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바디퍼커션을 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악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지도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 문헌

1. 단행본

석문주, 최은식, 함의주, 권덕원(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제1판, 교육과학사.

윤양석(2000), 『음악의 이해』,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임미경, 장기범, 함의주(2002),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벨로체.

한국 오르프 음악교육 연구소(2013), 『(뽀봉이와 함께하는) 바디퍼커션(body percussion)』, 한국 오르프 음악교육 연구소.

한국음악교육협회(1996), 『음악교육연구1』, 창지사.

J. Mursell, M. Glenn, 신도웅 역(1987), 『음악교육심리학』, 세광음악출판사.

J. Pasler(2009), 『Composing The Citizen: Music as Public Utility in Third』, Republic France, CA.: University California Press.

P. Creston, 최동선 역(1997), 『리듬원리』, 세광음악출판사.

2. 학술논문

윤소희, 황명자(2020), “몸타를 활용한 리듬표현 수업이 무용 재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리듬운동학회지』, 13.2, 15-26.

이귀자(2000), “리듬이론에 관한 연구”, 『이화음악논집』, 제4집, 141-166.

이현수(2021), “바디퍼커션의 음악수업 활용”, 『음악교육연구』, 50.1, 131-154.

_____(2022), “타악기를 활용한 놀이 음악수업 지도 방안”, 『음악교육연구』, 51.1, 71-97.

조현경(2007), “리듬활동을 통한 리듬 개념 지도 방안”, 『음악교육』, 제8호, 107-12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학위논문

고인국(2012), “타악기를 활용한 리듬학습 지도법”,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미라(2018), “LT(Learning Together)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몸타 신체표현 수업 지도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인옥(1997), “즉흥적인 음악 표현력 신장을 위한 단계별 지도 방안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노미연(2011), “신체표현을 통한 음악수업 지도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하은(2023), “중등 방과후학교 난타 리듬합주 수업지도안 개발 :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경덕(2002) “달크로즈의 교수법을 활용한 초등학교 리듬학습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종화(1996), “율동적 동작이 음악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배영언(2003),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수업 지도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주미(2006), “유리드믹스를 적용한 음악 수업안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윤소영(2007), “음악성 신장을 위한 신체 표현 활동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정근(2003), “음악 외 분야와의 통합을 통한 음악 요소 및 표현 원리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최진욱(2005), “오르프 '기초음악'의 개념과 활동방식을 이용한 창작 학습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Guidance of Music Classes to 「Body Percussion」

Park Jo-Eu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gration of body percussion into music education, with a view to enhancing student engagement and improving musical abilities. This innovative approach diversifies the conventional music curriculum by promoting physical involvement, thereby stimulating greater interest and fostering direct student participation.

The study first delves into the socio-cultural context which underscores th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mportance of physical movement in music education. It critically examines the pedagogical philosophies of eminent educators such as Dalcroze, Kodály, and Orff, who effectively incorporated physical movement into their music teaching methodologies. The educational efficacy of such an approach is affirmed through an extensive review of prior research related to this pedagogy. Following this theoretical groundwork, the study proposes instructional strategies employing body percussion, targeting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The intent is to validate elements such as heightened interest, increased participation, improved cooperation, enhanced sociability, boosted confidence, and the sense of achievement. These strategies were executed over three sessions, and post-session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evaluate factors such as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lessons and the enhancement of musical abilities. The primary goal was to underscore the positive impact of body percussion on music education. The study's findings suggest that body percussion positively influences not only the students' interest in music lessons but also promotes cooperation, sociability, improvisation, and creativity through group and rhythm creation lessons. Furthermore, the study anticipates that integrating body percussion into music lessons will encourage learners' autonomous participation, rendering the approach practically advantageous in real-world teaching scenarios. Finally, it expresses optimism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hysically-engaged music education and encourages rigorous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1. <1차시> 설문지

<1차시> 설문지

성별 : / 학년 : / 이름 :

[1] 평소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은편이다.
⑤ 매우 적은편이다.

[2] '바디퍼커션'과 같이 신체활동을 통한 음악수업을 접해본 적 있는가?

① 처음이다.
② 들어만 봤다.
③ 경험해본 적이 있다.
④ 현재 비슷한 수업을 받고 있다.
⑤ 기타 : SNS에서 접하여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경험해 본 적은 없다.

[3] '바디퍼커션'이라는 말을 듣고 앞으로 할 활동을 유추 할 수 있었는가?

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②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③ 전혀 알지 못했다.
④ 관심 없었다.
⑤ 기타 :

[4] 1차시 수업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① 매우 좋았다.
② 약간 좋았다.
③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④ 생각보다 별로다.
⑤ 아주 별로다.

[5]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게 서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2. <2차시> 설문지

<2차시> 설문지

성별 : / 학년 : / 이름 :

[1] '바디퍼커션'에 대한 수업 후 자기 주체적으로 연습을 한 시간은?

① 전혀 하지 않았다.
② 10분~30분
③ 30분~50분
④ 60분(1시간)~90분(1시간 30분)
⑤ 2시간 이상

[2]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일상생활(일정)에 방해가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과제와 활동을 하면서 창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부담)이 있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2차시 수업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① 매우 좋았다.
② 약간 좋았다.
③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④ 생각보다 별로다.
⑤ 아주 별로다.

[5]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게 서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3. <3차시> 설문지

<3차시> 설문지

성별 : / 학년 : / 이름 :

[1] 창작과 발표, 협동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학생들이 생각하는 음악교육에 적용가능성은 어떠한가?

① 매우 좋을 것 같다.
② 좋을 것 같다.
③ 보통일 것이다.
④ 별로일 것이다.
⑤ 매우 안 좋을 것이다.

[3] '바디퍼커션'을 알기 전보다 음악 능력이 향상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약간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모르겠다.

[4] '바디퍼커션' 전체 수업의 만족도는 어떠했는가?

① 매우 좋았다.
② 약간 좋았다.
③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④ 생각보다 별로다.
⑤ 아주 별로다.

[5]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게 서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